

근대의 손님들

손유경**

백낙청의 황석영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초록 이 글은 황석영의 『손님』에 관한 백낙청 비평의 촉매라 할 수 있는 분단체제론을 민족문학론 및 이중과제론과의 담론적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고, 그가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문학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은 황석영의 『손님』을 비판적으로 독해한 것이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는 해방기 중도와 문인들의 꿈과 그것을 계승한 방북 작가 황석영, 그리고 그가 쓴 장편소설 『손님』의 현재적 의의를 새삼 묻게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백낙청의 『손님』론과 그 비평 대상인 황석영의 『손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2장에서는 분단체제론과 민족문학론의 비평적 절합 양상을 고찰하면서, 민족문학이 분단체제극복 문학의 대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왜 양날의 칼과 같은 전략인지를 살펴본다. 3장의 논의는 황석영의 『손님』에 관한 백낙청의 비평문과 그 비평 대상인 『손님』을 분석하고, 그 결과 『손님』이 루카치 리얼리즘론의 전도된 형상처럼 보이는 까닭을 밝히는 데로 집중된다. 4장의 주요 내용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이중과제론이라는 아젠다와 접속하면서 얻어진 이론적 역능과 비평적 한계를 두루 짚어보는 것이다. 5장에서는 황석영의 『손님』을 이중과제론적 시각으로 ‘읽어보라’는 백낙청의 주문이 도리어 이중과제론적 읽기의 ‘어려움’을 환기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손님』 읽기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세대론적 관점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 만일 『손님』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찾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거나 의미 있다면, 그 화해는 기독교라는 손님과 공산주의라는 손님 사이에서가 아니라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점을 논함으로써, 본고는 황석영의 『손님』과 백낙청의 『손님』론이 지니는 문제성과 현재성을 지금 이곳의 감각으로 새롭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주제어 백낙청, 분단체제론, 이중과제론, 황석영, 『손님』, 루카치, 리얼리즘론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오랜 기간 염상섭 문학의 주변부로 인식되어 왔던 『효풍』(1948)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된 것은 김재용에 의해서였다. 그는 일제 말기부터 해방기까지 만주(1939) → 신의주(1945) → 서울(1946)로 이어진 염상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신의주에서 맞이한 해방의 경험이 이후 그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한다. 즉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의 체류가 “민족의 현실과 운명을 고찰할 때 남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북한을 통틀어 보려고 하는”¹ 염상섭 특유의 관점을 낳았으리라는 것이다. 신의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염상섭의 행적은 조선문학가동맹 가입, 단선 반대 운동, 남북협상지지 등으로 요약되는데, 중도파로서의 이러한 활약은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제정(1948. 12.)과 국민보도연맹 결성(1949. 6.)으로 대변되는 냉전적 질서가 남북관계를 급속히 경색시켰기 때문이다. 김재용에 따르면 해방기 염상섭은 분단을 초래한 외세뿐 아니라 그런 강대국에 편승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내 세력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가 『자유신문』에 연재했던 소설 『효풍』이야말로 그러한 인식의 결정체로서 “해방 직후 민족 현실의 총체적 상에 접근”²한 해방기 염상섭의 대표작이라 수 있다.

이처럼 남과 북 모두를 시야에 넣고 민족 현실의 ‘총체적 상’에 접근한 21세기의 대표작으로 황석영의 『손님』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분단 40년 만인 1989년에 이루어진 황석영의 전격적인 방북과, 그 뒤늦은 문학적 결실로 2001년 발간된 장편소설 『손님』은, 『효풍』의 주인공 박병직의 좌절된 북행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환기하는 문학적 사건으로 기록할 만하다. 출간 당시 작가 황석영이 직접 밝힌 출간의 변, 즉 한반도에 떠도는 냉전의 유령을

1 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p. 194.

2 김재용(1999), p. 217.

잠재우고 “화해와 상생의 새 세기를 시작하자”³는 것이 작가의 본뜻이라는 그의 메시지에 문단과 학계는 즉각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분단체제론의 주창자로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문학의 막중한 역할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백낙청 역시 황석영의 독보적 존재감과 『손님』의 문학적 성취에 크게 고무되었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의 확립과 지속이 한반도 민중의 “노예성과 식민성”⁴을 조장하고,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원천적 한계로 말미암아 남북한은 “완전한 국민국가 상태에 미달”⁵된 채 존속하고 있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백낙청은 민중이 주도하는 분단체제 극복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오던 터였다. 백낙청은 황석영의 『손님』이 분단체제 성립의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탐색함으로써 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찰을 촉발한 값진 소설이라 평가했다.⁶

본고는 황석영의 『손님』에 관한 백낙청 비평의 촉매라 할 수 있는 분단체제론을 크게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려 한다. 첫째, 분단체제론의 문학비평론으로서의 성격이다. 분단체제론이 “문학적 상상력에의 탐닉”⁷으로 공격받는다든 것을 인식하면서도, 백낙청은 분단체제 극복에 요구되는 독창적 상상력은 사회과학이 아닌 문학의 영역에서 발휘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의 이런 신념이 잘 반영된 것이 바로 분단체제론과 민족문학론의 절합이다. 백낙청은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적 전제를 문제시하면서 민족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이지 않은 민족문학 기획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 민족문학 작가들이 보인 헌신과 열정은 사회과학자들의 과학적 작업에 비해 훨씬 더 큰 실천력을 지닌다는 것이 그의

3 황석영(2001), 「작가의 말」, 『손님』, 창작과비평사, p. 262.

4 백낙청(2009a),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창비, p. 30.

5 백낙청(2009a), p. 37.

6 백낙청(2006a), 「황석영의 장편소설 『손님』」,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p. 355.

7 백낙청(2009a), p. 40.

지론이었다. 이러한 믿음의 원인이자 결과가 바로 1970년대 민족문학 작가들의 활발한 움직임이었고, 황석영의 방북과 그가 쓴 『손님』은 그중에서도 백미에 해당되는 사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의 2장과 3장의 주안점은, 분단체제론과 민족문학론의 비평적 절합 양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2장),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문학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 황석영의 『손님』을 비판적으로 다시 읽는 것이다(3장).

둘째,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함의. 분단체제론의 이론적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이중과제론에 관한 백낙청의 사유와 그로부터 촉발된 몇몇 논쟁을 다시금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이란 “세계체제 차원으로 적용되는 추상 수준 높은 담론”이며 그것이 “한반도 차원으로 적용될 때는 분단체제론”으로, 그리고 “당면한 남한사회에 적용될 때는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으로 구현”⁸된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이중과제는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꾀하는 게 맞다는 백낙청 특유의 견해를 드러내는 개념으로, 이 기획의 한반도 버전이 바로 분단체제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지상주의라는 심심찮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 극복을 향한 백낙청의 이론적·실천적 노력은 한 번도 뒷걸음질 친 적 없는데,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이중과제론이라는 화두와 만남으로써 얻게 된 이론적 역능과 비평적 한계를 두루 짚어보는 것이 4장의 주요 내용이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황석영의 『손님』을 이중과제론적 시각으로 ‘읽어보라’는 백낙청의 주문이 도리어 이중과제론적 읽기의 ‘어려움’을 입증하거나 환기하는 양상에 주목하고, 『손님』 읽기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세대론적 관점의 도입을 제안해 본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규정되는 지금 이곳의 한반도 상황은 본고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중도파 문인들의 전망을 새삼 상기시킨다. 작가 염상섭과

8 백낙청(2009b),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와 녹색담론」,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창비, p. 200.

『효풍』의 작중 인물 박병직, 그리고 작가 황석영이 꾸었던 꿈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황석영의 『손님』을 통해 분단체제의 극복 가능성과 문학 고유의 역할에 관해 낙관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백낙청의 글쓰기를 비판적으로 반추하게끔 한다. 이에 본고는 백낙청의 『손님』론과 그 비평 대상인 황석영의 『손님』을 모두 시야에 넣고 두 텍스트의 문제성과 현재성에 관해 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이종과제론의 이론적·비평적 의의와 한계를 짚어본 후, 마지막으로 황석영의 『손님』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를 지금 이곳의 감각에 비추어 가늠해 볼 것이다.

2. 분단체제론의 지층과 지형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화한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1970년대 강만길의 분단시대론과 1980년대 분단모순론을 거쳐 2000년대의 이종과제론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배경으로 전개된 담론이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근대적 정상 국가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한반도의 특수한 처지에 대한 백낙청의 고민은 다음과 같은 구절들에 응축돼 있다. 한반도 분단체제는 “심상한 양국관계가 아닌 반민족적·반민중적 분단의 체제”이며 “**유례없이** 경직되고 살벌”하며 “남북 각각에서 세계가 놀라는 저 나름의 실적을 올리기도 한 **전대미문**”⁹의 체제다. ‘심상치 않은’, ‘유례없는’, ‘전대미문의’라는 수식어에 실려 있는 특유의 파토스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비정상성과 그 극복의 당위성을 강하게 환기한다. 분단체제 극복이 “아무런 형태의 통일을 이루는 것 이상”¹⁰을 의미하는 까닭은, 통일 자체가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평

9 백낙청(1989),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비평』 17(1), pp. 91-92.

10 백낙청(2009a), p. 39.

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백낙청이 파악한 분단체제의 특징은 남북한 기득권 세력이 적대적 관계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체제의 독특한 하위체제로서의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 분단체제 극복에서 중요한 것은 체제 기득권 세력 아닌 민중 주도의 통일과정이며, 그것이 바로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통일운동의 민중주도성에 관한 백낙청의 신념은 사회과학자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좀 더 선명해진다. 특히 87년 6월 항쟁 이후 남한사회 내부의 계급모순을 중시한 급진적 사회이론가들이 통일운동의 계급적 관점 결여를 비판하자, 백낙청은 자신이 상정하는 통일운동의 주체는 노동자 계급 중심의 민중임을 강조하면서,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없는 사회이론을 표준으로 삼아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주장하는 일이야말로 관념적이라 비판한다.¹¹ 통일운동은 분단체제를 공유하는 남북한민중 연대에 기반을 둔 민중운동이라는 주장이다.¹² 이에 손호철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남북한민중의 연대는 그 문제의식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부족한 당위론이자 관념론적 이상론이라 대응한다.¹³ 그러자 백낙청은 임수경의 방북 사건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남북한 민간교류가 얼마나 민중주도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될 거라고 답한다.¹⁴ 범한반도적 민중운동과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야말로 1990년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할 수 있다.

“소모적인 모순 논쟁에 끌려들기 싫어서 분단모순론에서 분단체제론으로 일찌감치 선회”¹⁵했다는 백낙청의 소회는 “‘모순’의 개념 자체를 둘러싼

11 백낙청(1989), pp. 89-90.

12 백낙청(1992),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4), pp. 307-308.

13 손호철(1994),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창작과비평』 22(2), p. 340.

14 백낙청(1994),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 『창작과비평』 22(3), pp. 254-255.

15 백낙청(2006b), 「민중문학, 세계문학, 한국문학」,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p. 17.

부질없는 말싸움을 감당하기 힘들어 논의의 초점을 ‘분단체제’로 옮겼다”¹⁶는 유사한 문장으로도 표현됐다. 모순론이든 체제론이든, 해당 논쟁이 민중 주도의 통일운동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그는 판단했다. 즉, 논쟁이 부질없고 소모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그것이 실제 민중의 삶을 변혁하는 운동론적 가치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백낙청은 손호철에게 “나 자신의 변함없는 바램은 사회과학도들이 분단체제가 자기가 아는 ‘체제’ 개념에 얼마나 안 맞느냐를 설파하기보다, 정확히 얼마나 ‘느슨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부여해야 마땅한 개념인가를 좀 더 ‘엄밀히’ 밝히는 데 힘을 모았으면”¹⁷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손호철과의 논쟁 이후인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이 사회과학적 언설이 아닌 ‘문학적 기획’임을 반복적으로 천명한다.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회과학과 비서구 민중 중심의 문학을 대립적으로 파악한 후,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작업을 수행해왔다고 그는 역설한다.

민족문제를 ‘분단체제’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일은 앞에서 말한 **문학적 과제**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민족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이라기는 힘든 과제로서 통일 문제에 천착하는 작업이 좀더 분명한 표현을 얻는다. 이는 민족해방론과 레닌주의 혁명론 **어느 쪽의 ‘진보적 사회과학 담론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실감에서 추동된 바 없지 않다. 적어도 문학적 상상력은 ‘민족’ 또는 ‘국민’을 하나의 완결된 실체로 전제한다든가 자족적인 분석단위로서의 ‘남한 자본주의’ 같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론화하기보다, 분단된 나라에 실제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려고 하는 미덕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민중지향적**인—즉 양쪽의 기득권층이 보통사람

16 백낙청(1994), p. 248.

17 백낙청(1994), p. 243.

들과 대립되며 그들을 억압한다고 보는 의미의—담론으로서, 그리고 전지구적인—즉 한반도의 분단을 세계체제의 국지적 작용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의—시각으로서, **작가들의 분단체제 극복 의지**는 민족적인 과제를 지구적인 과제 및 국지적 현장의 과제들과 통합하는 작업을 ‘과학성’을 내세우는 **담론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¹⁸

통일이라는 민족적 이슈를 다루는 민중지향적 작가들의 분단체제 극복 의지가 진보성 내지는 과학성을 내세우는 사회과학자들의 담론에 비해 훨씬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실천적 힘을 지닌다는 위의 논의는 서구 vs. 비서구, 사회과학 vs. 문학, 이론 지향성 vs. 민중 지향성이라는 양분법적 틀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서구 이론을 추수하는 사회과학은 비서구 민중 주도의 민족문학에 비해 분단이라는 ‘유례없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고 그는 지적한다. “분단체제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중심주의적인 사회과학에 대한 일종의 탈사고와 직결”¹⁹된다고도 했다. 분단 문제에 관한 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회과학이 아닌 문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평가²⁰는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의 핵심은 그것이 “세계체제의 **독특한 하위체제**”²¹로 간주된다는 데 있다. “유례없는” “전대미문의” 분단이라는 그의 상황 판단이 “한반도와 한민족을 ‘특권화’할 우려가 있다는 손호철의

18 백낙청(2009a), p. 45.

19 백낙청(2009a), p. 48.

20 “사회과학자들이 놓치기 쉬운 의식이나 생활양식적인 면에서의 문제를 분단체제론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분단의 문제에는 정치경제적으로만 분석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혹은 체계모니적 지형입니다. 이제까지 분단을 다룬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문학 영역으로, 많은 분단관련 문학작품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분단으로 인해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과 의식들이 얼마나 크게 왜곡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영서·손호철·유재건·김호기(1995), 『좌담: 근대성의 재조명과 분단체제 극복의 길』, 『창작과비평』 87, p. 141.

21 백낙청(2009a), p. 36.

지적을 남기도 했거니와, 중요한 것은 “분단민족의 특수한 현실”²²에 관한 백낙청의 이러한 사유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이라는 그의 오랜 화두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이 민족문학의 새 단계로 위치조정을 겪게 된다는 점은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분단체제론을 지난날의 민족문학론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그의 글에는 분단체제론을 민족문학의 새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6월 항쟁 이후 “분단현실에 대응하는 한층 심화된 이론과 본격적인 작품생산이 가능해지는 단계를 상정”하여 제창한 것이 바로 “1980년대 말 민족문학의 새 단계”이며 “이러한 대응을 내 나름으로 겨냥한 결과가 이론의 영역에서는 ‘분단체제론’을 중심으로 제시”²³되었다는 구절이 그 한 예다. 오랜 논쟁 끝에 “살아남은” 민족문학론은 특정한 문맥에서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는 그의 평가는 다음의 서술로 이어진다.

이 작업[분단체제극복 작업-인용자]이 한반도의 분단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뜻에서 ‘민족문제’일뿐더러 민족주의적 동력을 무시하고 해결할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이라는 설명적인 문구 대신에 ‘민족문학’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많은 것이다.²⁴

대명사나 대체품에서 핵심은 바뀌 쓰는 데 무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백낙청이 비판한바 분단체제론을 지난날의 민족문학론으로 오해(이해)하는 이들을 탓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분단체제가 엄존하

22 백낙청(2009a), p. 43.

23 백낙청(2006b), pp. 14-15.

24 백낙청(2006b), p. 20.

는 한 민족문학론은 아직 유효하다는 그의 입장이²⁵ 민족문학은 분단체제 극복 문학의 **대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진전했음이 확인 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과 차별화되는 문학 고유의 역할에 기댄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은 이처럼 분단체제극복 문학과 민족문학의 호환성을 입증하는 작업으로 수렴된다.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이 궁극적으로는 민족문학론을 강화하고 민족문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의 성취”²⁶에 골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한 윤성호의 입장이 주목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분단체제극복을 위한 문학적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날의 민족문학을 재호출한 백낙청의 전략은 양날의 칼과 같다. 199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한 분단체제론의 기틀이 1970년대 민족문학론의 뼈대와 무리 없이 교체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호환 가능성은 분단체제론의 연원이 그만큼 깊다는 사실을 일단 입증해주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분단체제론 자체의 시의성 내지는 독창성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겠기 때문이다.

3. 전도된 루카치의 리얼리즘론

분단체제극복 문학과 민족문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백낙청의 이러한 관점은, 1970년대 민족문학의 기수 황석영이 2001년에 발표한 『손님』에 그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유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백낙청의 『손님』론은 분단체제 극복 과정에서 창조적 문학의 몫이 유달리 강조된다는 그의 지론을 바탕으로 씌어진 비평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백낙청에 따르면 분단체제

25 백낙청(2006c), 「2000년대의 한국문학을 위한 단상」,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p. 192.

26 윤성호(2009), 「누가 민족문학을 두려워하라?: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민족문학」, 『동아시아문화연구』 45,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p. 448.

의 극복은 평화적인 동시에 변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므로 첨단의 인식과 독창적 사유가 요구되는데, 오늘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²⁷을 주는 문학이야말로 그러한 창조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품게 만든다. 황석영의 장편소설 『손님』은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주목에 값하는 작품이다. 백낙청이 강조한 『손님』의 성취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손님』은 분단체제의 형성 과정과 그 요인을 탐구한 소설이다. 한국전쟁 초기 황해도 신천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작가는 해방 직후 이북의 기독교 우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간의 극심한 갈등이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로 대변되는 외세(‘손님’)의 책임뿐 아니라 그 지역의 복잡한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균형 있게 제시했다. 요컨대 해방 직후의 극심한 민족 분열과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분단체제의 성립에는 미·소 강대국의 경쟁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들 자신의 이런저런 행위가 크게 작용”²⁸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 토지개혁 문제가 갈등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점이 리얼하게 그려졌다. 둘째, “화해와 상생의 새 세기를 시작”하고자 한다는 작가의 의지가 분단체제론과 상통한다. 신천학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미제 침략자들의 범죄라는 것인데, 『손님』은 학살 책임을 미군이 아닌 반공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써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려는”²⁹ 값진 노력을 기울인 텍스트다. 이런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체제의 선전이나 공식 입장에 얽매이지 않는 진실 추구가말로 참다운 화해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단순한 양비론으로 흐르지 않고 마르크스주의가 조선 현실에서 행사한 긍정적 기능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손님』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과 기독교 우파 간의 무차별한 보복 살육이 악순환을 거듭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좌익은 적어도 광기

27 백낙청(2006a), p. 336.

28 백낙청(2006a), p. 338.

29 백낙청(2006a), p. 338.

에 사로잡혀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³⁰

그러나 『손님』의 이러한 성취에는 몇 가지 한계가 뒤따른다. 첫째, 분단체제의 원인을 탐구하는 데 모든 책임이 외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손님’이라는 표제와 어긋난다. 물론 제목과 내용의 미묘한 불일치가 작품의 매력을 더할 수 있겠지만, 손님을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로 규정한 작가의 말이 작품의 문제의식을 좁혀버릴 가능성도 있다. 둘째, 화해 달성 과정이 실감 나게 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주인공 류요섭 목사의 형 류요한이 지난 시절 저질렀던 천인공노할 만행은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구체성을 더해가는데, 당시 요섭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은 ‘헛것’이 되어 요섭의 눈앞에 나타나지만 이들은 원귀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용서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신동훈이 지적한 바대로 원한을 풀어내는 과정이 생략돼 있는 것이다.³¹ 셋째, 유명들이 “충분히 유명답지 않다”는 점이 예술적 차원의 흠결이다. 원귀다움이 결여된 유명들이 “평범한 주민들처럼 행동”³²한다는 점은 결말의 억지스러운 화해와도 관련된다.

이와 같은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분단체제에 대한 새로

30 현길언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손님이 위장된 화해 서사라고 비판한다. 기독교인들의 만행만 부각시켰다는 점이 작가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드러낸다고 비판한다. 본고는 이 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이 작품은 작가가 의도한 대로 화해의 구조가 아니고 완벽한 용서의 구조로 되어 있다”(p. 255)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현길언(2005), 「위장된 민족주의와 가짜 화해: 황석영의 『손님』의 문제, 『본질과 현상』 2, 본질과현상사.

31 신동훈에 따르면 “무당이 작두에 올라 대속의 죽음을 현시하는 식의 존재적 몸짓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류요섭이 복한 땅에서 만난 이들과나 억울하게 죽은 자 모두 그 “해원의 과정은 너무 피상적이고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진지노귀굿 형식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에서는 ‘굿의 서사’라 할 만한 실질적인 미적 자질을 발견하기 어렵다. “진정한 한편 ‘진지노귀굿’이 되고자 했다면 산 자와 죽은 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저 밑바탕에서 만나서 가슴속에 수십년간 쌓아뒀던 원망과 회한을 날날이 펼쳐내면서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서사적으로 오롯이 살아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훈(2018), 「황석영 소설을 통해 본 이야기 전통의 현대적 재현 문제,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p. 100.

32 백낙청(2006a), p. 353.

운 성찰을 촉발”하며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값진 경험”³³을 선사해 주는 작품이라는 것이 『손님』에 관한 백낙청의 총평이다. 이후 백낙청은 “나의 『손님』론은 분단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와 문학평론의 상보 가능성을 탐구한 평론”³⁴이라 자평했고, 황정아 역시 백낙청의 손님론이 “텍스트의 안팎을 넘나드는” 리얼리즘 비평의 특징을 체현하면서 분단체제론 같은 “비-문학 담론”³⁵과 문학비평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여 주는 좋은 사례로 호평한 바 있다.

백낙청의 『손님』론을 포함한 위의 논의들에서 주목되는 점은, 화해나 평화, 혹은 해원이 『손님』의 주제라는 점만큼은 이론의 여지 없이 두루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 자든 죽은 자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처리됐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화해라는 주제 자체가 의문시된 적은 없었다. 황정아는 굿판을 통한 해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손쉬운 비판들에 오히려 불만을 드러내면서, (그 과정은 차치하고) 해원의 서사 자체가 매우 감동적이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³⁶ 요컨대, 지금까지의 『손님』론을 대략 통틀어 보면, 작품에 드러난 해원의 방식이나 화해 과정을 비판한 경우는 있었어도, 해원이나 화해가 작품의 중심 메시지라는 점이 의문에 붙여진 경우는 없다시피 했다. 작가 자신의 말(“화해와 상생의 새 세기”)과 그 발언을 지지한 백낙청의 평가가 이런 흐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손님』은 화해의 서사인가? 작중에서 ‘영매’ 역할을 담당하는 류요섭과 안성만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손님』은 수평적 화해가 아닌 수직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읽힌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백낙청의 지적대로 『손님』의 중심인물 요섭과 작가 황석영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에서

33 백낙청(2006a), p. 355.

34 5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p. 173.

35 4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p. 133.

36 5회차 공부모임(2018), p. 196.

문제적인데, 이는 달리 말해 작가의 의도를 가장 투명하게 전달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요섭임을 뜻한다. 그리고 요섭이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다”³⁷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작가의 말>에서 황석영은 ‘화해와 상생’을 강조했다. 그러나, 작중 인물 요섭의 입을 빌려서는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요섭의 외삼촌 안성만의 등장 이전 작중에서 유일하게 유령을 보는 인물은 류요섭 목사다. 요섭은 죽은 형의 유해를 품고 북한을 방문해 살아 있는 형수와 조카, 그리고 외삼촌 안성만을 만난다. 그는 때로 형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 빙의되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형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순남이 아저씨나 일랑이 등의 유령과 자연스레 만나 대화를 나눈다. 방북한 요섭이 형수와 조카를 다시 만나 옛 얘기를 나누는 소설 중반부에서 그는 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요한의 영혼을 가리키며 이렇게 단언한다. “서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나게 된다.”³⁸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없는 거다.”³⁹

이 대목은, <작가의 말>이라는 곁텍스트(para-text)에 기대어 기왕의 눈자들이 대체로 합의해 왔던 지점, 즉 화해와 평화, 해원이야말로 작가 황석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는 데 대한 의미심장한 도전으로 읽힐 만하다. 화해가 아닌 용서와 구원을 작품의 골간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 용서와 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중 핵심 가해자인 류요한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지상의 피해자가 아닌 천상의 신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중요한 문제다.

다행인 것은, 기독교인이자 당원인 안성만의 등장 덕분에 이 구원의 대상이 피해자(유령들)를 포함한 “우리 모두”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왜 자신들

37 황석영(2001), 『손님』, 창작과비평사, p. 143.

38 황석영(2001), p. 94.

39 황석영(2001), p. 143.

의 눈에 헛것이 보이는지를 요섭이 묻자, 삼촌인 안성만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 일일 겪은 사람들의 때가 무르익었던 소리디. (중략) **구원할라고 비는 게다.**”⁴⁰ 자신과 삼촌은 가해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요섭의 항변에 그는 “가해자 안니 것덜이 어딴”라며 매일매일 자신은 신께 “우리 모두덜 구원해달라”⁴¹는 기도를 드린다고 말한다.

서사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제8장 <시왕: 심판마당>은 유령들의 회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령들의 기억과 증언으로 신천학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는 8장에서 주목되는 점은, 유령이 된 과거의 피해자(순남이 아저씨)가 역시 유령이 된 과거의 가해자(요한)와 대면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송두리째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백낙청의 『손님』론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언급한다. 즉 요한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인 것으로 나오는 상호와의 대면이나 화해 없이 해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무리한 설정이라는 것이다. “죽으면 자잘못이 다 사라지디만 짚어는 보구 가야”겠기에 요한이를 데려가기 전에 요한이 죽인 사람들과 요한 사이의 관계를 풀어 주고 싶다는 순남이 아저씨의 목소리에서 독자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은 바로 ‘죽음 = 화해’라는 허무한 해법이다. 8장의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는 바람에, 가해자 요한은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신에 의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 작중에 오롯이 남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님』에서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인물 간 화해가 절실한 문학적 표현을 얻고 본격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분단체제의 성립에 미친 외세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지만 우리 안에서의 반목과 갈등, 의심과 복수라는 요소 역시 결코 무시해선 안 된다는 황석영의 역사적 판단을 백낙청은 높이 산다. 『손님』이 분단체제의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파고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미덕이다. 그

40 황석영(2001), p. 175.

41 황석영(2001), p. 175.

러나 “분단현실을 직접 다루면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 **소설**로는 독보적 위치에 있”⁴²다는 평가는 이렇게 다시 씌어야 하지 않을까? ‘분단현실을 직접 다루면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한 **작가**로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말이다. 백낙청은 분명 “1989년 최초의 불법 방북 이후 북녘을 남쪽의 어느 작가보다 널리 둘러보았고 이후 망명과 투옥이라는 대가를 치른 **황석영의 입지**는 남다르다”고 했다. “바로 그런 입지를 던고, 또 그러한 입지가 6.15공동선언으로 좀 더 넓어진 시점에 나온 것이 그의 장편 『손님』”⁴³인 것이다. 민간방북의 계보⁴⁴를 새로 쓰며 감행한 불법 방북과 망명, 그리고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진 ‘민족작가’ 황석영의 행보야말로 그를 남한 문학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한 인물로 평가하게 만든 요소임이 분명하다.

루카치는 널리 알려진 그의 리얼리즘론에서 작가의 진보적 세계관과 창작방법론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뛰어나게 분석했다. 계급사회의 위대한 작가는 철학·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좋아하는 작가들”⁴⁵ 이를테면 셰익스피어나 괴테, 발자크 등이 입증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몰락해가는 귀족계층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발자크가 어찌하여 자신의 견해와 정반대로 읽히는 소설, 즉 부르주아의 승리를 예견하는 작품을 내놓았는지 탐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값진 통찰은 엥겔스가 마가렛 하크네스에게 보낸 유명한 편지에 담겨 있다. 루카치는 편지의 핵심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견한 “참으로 위대한 작가”는 “자유로운 심미적 정직성”을 지닌 채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연구·조사한다. 그런데 위대

42 백낙청(2006a), p. 354.

43 백낙청(2006a), p. 337.

4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8674.html>

45 게오르크 루카치(1987),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미학적 텍스트에 대한 입문」, 차봉희 편저,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한마당, p. 234.

한 작가들이 그 본질에 다가서려는 현실은 작가 자신의 오랜 염원이나 확신, 성향, 환상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서 있다. 이 작가들은 자신의 내면적 확신들이 현실의 참다운 변증법과 모순되어 허공에 흩어져 버리게 되어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않는다. 이를 가리켜 루카치는 위대한 예술가의 “자유로운 심미적 정직성”이라 명명했다.⁴⁶

루카치가 파악한 리얼리즘의 본령은 ‘작가(마음, 의지)에 대한 객관적 현실의 승리’에 있다. 설령 한 작가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지라도 “무엇에도 매수되지 않는 자유로운 심미적 정직성”을 지니고 현실을 탐구한다면 그의 소설은 변화하는 사회의 전망과 “진보적 계기들”을 발견하고 형상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스르는 힘, 말하자면 “불가항력성”이 리얼리즘의 승리를 보증한다. 루카치의 관점에서 『손님』을 평가해 본다면 어떨까? 조금 냉정하게 말하자면, 『손님』은 루카치 리얼리즘론의 전도된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과 그의 내밀한 소망(〈작가의 말〉)이 유명들의 화해—화해라기보다는 신에 의한 가해자의 구원이라고 해야 할 상황—라는 무리한 작중 결말을 빚어냄으로써, 산 자들의 현실적 화해 불가 능성이 부지중 환기되고 만 것은 아닐까? 루카치는 어쩌면 이 사태를 가리켜 ‘객관적 현실에 대한 작가(마음, 의지)의 승리’라 일컬었을지도 모른다.

4. 이중과제론의 이론적 역능과 비평적 한계

널리 알려진 것처럼 황석영이 『손님』을 출간한 배경이자 그 작품이 평단의 호평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었

46 게오르크 루카치(1987), pp. 232-234. 일제 식민지시기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사의 맥락에서 루카치의 ‘리얼리즘의 승리’론이 미친 심대한 영향력에 관해서는 김동식(2011)의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임화의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에 관한 몇 개의 주석」(『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이 상세하다.

다. 백낙청에 따르면, 당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조속한 통일”이 아닌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화해와 재통합”이라는 대안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안적 구상이야말로 “뒤늦게 ‘정상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응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⁴⁷ 앞선 3장에서 논의했듯 백낙청이 황석영의 『손님』에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은 “한반도에 남아 있는 전쟁의 상흔과 냉전의 유령들을 한판 굶으로 잠재우고 화해와 상생의 새세기를 시작”하고자 한다는 작가 황석영의 의지를 그가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백낙청의 『손님』론에서 확인된 분단체제극복의 문학론이 근대의 이중과제론과 만나면서 발생한 이론적·비평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중과제론의 제출 배경에 관한 백낙청의 설명을 먼저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단체제 극복 작업을 이중과제론의 전형적 사례로 일컫는 그의 비평작업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백낙청 자신의 회고대로 그가 ‘근대극복과 근대적응의 이중과제’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처음 제시한 것은 1998년 미국 빙엄튼대학 페르낭 브로델 센터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이후 해당 발표문은 우리말로 번역되어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라는 제목으로 『창작과비평』 1999년 가을호에 실린다. 흥미롭게도 그는 최신 저작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에서 자신이 이중과제론을 처음 제안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한다. ‘이중과제론의 연원과 제출 계기’라는 별도의 절을 할애하여,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이라는 발상 자체가 전적으로 독창적인 것은 아니며 트랜스모더니티 개념을 표방하는 엔리케 두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부실한 근대극복 시도”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근대의 성취와 부정이라는 백낙청의 이중 기획이 세기말

47 백낙청(2021),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창비, p. 41.

포스트모더니즘론에 대한 창비 진영의 일관된 비판 작업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그가 보기에 포스트모던 제창자들은 충분한 근대적응 없이 성급히 근대극복을 선언하는 폐단을 저지르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세를 호도하는 부정적 역할을 수행한다.⁴⁸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백낙청과 창비 진영 필진들의 비판의식은 매우 일관적이고 문제적이었다. 위 문제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근대의 이중과제라는 백낙청의 화두가 탈근대론 혹은 포스트모더니즘 일반에 대한 창비 진영의 즉각적 거부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만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중과제론의 제출 배경에 대한 백낙청의 서술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서구 문화에 대한 자신의 뿌리 깊은 양가감정을 밝혀놓은 점이다. 즉 “개인사적 경위”를 말한다면 1970년대 초에 싹뻗던 “서양 주도의 근대에 대한 양가적 정서”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서구 국민국가가 선취한 국민문학을 우리도 성취하자는 의욕과, 서구의 제국주의 문화를 부정하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동시에 불타올랐던 1970년대를 이중과제론적 인식의 맹아기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의 신문학 초기에 벽초 홍명희와 황보 염상섭이 도달한 우뚝한 위치도 이중과제론적 시대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면, 자신의 경우에는 이것이 “민족문학론의 형태로 이론화되었다가 범한반도적 현실을 해명하는 개념인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했으며 이것이 근대 세계 전체에 관한 이중과제론으로 **발전**”⁴⁹했다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하게 읽히는 이유는, 민족문학론과 분단체제론 사이에 애당초 설정되었던 호환 관계가 발전도상에서의 진화 이전과 이후의 관계로 변모되어 있어서다. 본고의 2장에서 밝혀진바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은 민족문학으로 바꾸어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문학에 관한 논의(분단체제론)’를

48 백낙청(2021), pp. 34-35.

49 백낙청(2021), pp. 32-33.

‘민족문학론의 새 단계’로 이해해도 좋다는 것이 백낙청의 기존 입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두 개념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면서 진화론적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복하건대 백낙청은 서양에 대한 자신의 양가감정이 처음에는 “민족문학론의 형태로 이론화”되었다가 이후 “범한반도적 현실을 해명하는 개념인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했으며 마지막 단계로 “근대세계 전체에 관한 이중과제론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최근 저작에서 이중과제론은 백낙청의 사상적 진화 과정의 필연적 도달점으로 새삼 부각된 셈이다.

이중과제론의 기원과 위상에 관한 이같은 서술에 이어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단체제 극복작업이다. “한반도 분단체제 극복은 한반도에서의 근대적응 노력이 근대극복의 노력과 합치됨으로써만 가능해”지며 “분단체제극복 작업은 ‘이중과제’의 전형적인 사례”⁵⁰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관련된 구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한반도에는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다. 전근대적 왕조가 식민지배 아래로 들어갔다가 해방이 되면서 곧바로 분단국가가 되었다. 양쪽의 당국이 무어라고 주장하건 **남북한 모두 ‘정상적’인 국민국가가 아니고, 엄밀하게 정의되는 의미로 결손국가인 것이다.**⁵¹

한반도 주민들이 근대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분단체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중략) 어쨌든 한반도 주민이 **통일된 국민국가**를 보유함으로써 세계의 ‘국가간체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벌써 70년 가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게다가

50 백낙청(2021), p. 42.

51 백낙청(2021), p. 37.

통일 국민국가 수립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전망도 거의 없다.⁵²

두 인용문을 종합하면 이렇다. 정상적 국민국가란 통일된 근대 국민국가를 뜻하므로 남북한은 모두 정상적 국가라 할 수 없다. 한반도의 정상화는 통일된 국민국가 수립을 통해 가능해지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어쨌거나 한반도 주민들이 근대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 극복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 인용문에 드러나듯 조속한 통일이 분단체제 극복의 유일한 방도인 것은 아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최고지도자는 조속한 통일은 추구하지도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게다가 그들이 합의한 대안은, **점진적일 뿐 아니라 단계적인 화해와 재통합 과정**이었고 (중략) 느슨한 결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중략) 이러한 대안적 구상 자체는 뒤늦게 ‘정상적’인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응의 길**을 열어놓았다.⁵³

한반도 주민들의 근대적응을 ‘위해’ 분단체제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앞선 인용문의 요지였다. 즉 근대적응이 ‘목표’이고 분단체제 극복이 그 ‘수단’이다.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는 그 수단의 하나(근대적응의 “길”)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화해와 재통합, 즉 느슨한 결합이 제시된다. 그런데 만일 백낙청이 되풀이하여 강조한 바대로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과제가 전제와 결론, 혹은 선행과 후행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근대적응이라는 목표를 근대극복과 분리하여 다루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중과제는 “두 가지 과제의 병행이 아닌 이중적인 단일기획”⁵⁴이기 때문이다. ‘이중적 단일과제’라는 말은 적용과 극복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

52 백낙청(2021), p. 40.

53 백낙청(2021), p. 41.

54 백낙청(2021), p. 31.

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항이 단순한 병렬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을 내포한다. 물론 이중적 단일과제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다. ‘이중’이라는 말 자체가 ‘단일하지 않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항 사이의 동시성과 단일성이 고수되어야 한다면, 적응과 극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다르지 않은 둘, 즉 쌍생이어야 한다.**⁵⁵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 인용문을 다시쓰기해 보자.

(중략) 왕성한 시민참여로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연대에도 결정적인 보탬이 될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가 한반도에 건설된다면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의 **근대극복**에 한걸음 다가서는 성과가 되는 것이다.⁵⁶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 건설을 통해 근대극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위의 문장을,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 건설이 곧 근대적응의 길’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때라야, 극복과 적응은 ‘이중적 단일과제’ 즉 ‘애초에 다르지 않은 둘’이거나 ‘다르지만 같은 둘’일 수 있다. 즉,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이 한반도 주민들이 근대에 잘 적응하는(= 근대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저 앞에서 언급한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응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적응’을 의미하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이중과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99년 논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해당 논문에서 백낙청은 적응이라는 말을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만 언급했을 뿐 근대적응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주체의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는 밝혀놓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위의 글에서 적응과 극복은 ‘다르지만 같은

55 “적응과 극복을 구분하기보다는 ‘적응’이라는 개념을 이 양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남주(2009),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한반도 변혁」, 각주 9, 『이중과제론』(이남주 엮음), 창비, pp. 266-267.

56 백낙청(2021a), p. 41.

둘’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이라는 별개의 두 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에 적응한다든가 이를 감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규정하는 일부터가 다른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다. 근대 세계체제가 끝없는 자본축적과 그에 따르는 경쟁의 논리를 외면하는 일정 규모의 집단(뿐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심지어 파멸을 초래하는 한, 어쨌든 **최소한의 적응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겠다. 물론 그 과정에 뛰어들고 나서 과연 ‘최소한’에서 멈출 수 있을지는 골치아픈 질문으로 남지만 말이다. (중략) **근대 세계체제를 극복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적응하고 감당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감당하는 일은 “‘세계체제’의 중심의 문화”에 속한 수많은 값진 경험과 성취를 **적극적으로 본받는 일을 포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⁵⁷

‘적당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놓고 벌어진 김종철과의 논쟁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기에 상술하지 않으나, 위 글에서 근대적응이 근대극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은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김종철과의 논쟁 과정에서는 근대적응이 이중적 단일과제의 ‘일부’이자 근대극복의 ‘필요조건’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적응이란 낱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삼아야 할 적응은 어디까지나 동시에 **극복 노력이기도 한 이중적 단일과제의 일부로서의 적응**, 다시 말히 **극복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적응**, 극복 노력이 따름으로써만 투항이 아니라 주체적인 적응에 값하는 적응이다.⁵⁸

57 백낙청(2009a), pp. 42-43.

58 백낙청(2009b), p. 180.

짧게 살펴본 것처럼,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맥락에 따라 뉘앙스를 달리하므로 그 함의를 일일이 나누어 파악하는 일은 가능하거나 생산적이지 않을지 모른다. 다만 지금까지 훑어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백낙청의 이종과제론에서 적응은 애초에 **극복의 전제조건**(필요조건 또는 일부분)이었다가 나중에는 **극복의 한 양태**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 즉 **질적으로 다른 적응(성공)이 곧 극복**이다. 앞서 우리는 백낙청이 말한바 ‘질적으로 다른 적응’이 과연 어떤 적응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다르다’면 무엇과 ‘무엇과 다르다’는 것일까? 서구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서구 모델과는 질적으로 다른 한반도식, 한반도 특유의, “분단민족의 특수한 현실에 충실한”⁵⁹ 근대적응의 길 말이다. 발전된 서구 문화에 대한 양가감정이 긴 사상적 진화 과정을 거쳐 이종과제론이라는 사유의 정점에 올랐다고 백낙청은 회고했다. 그렇게 도달한 지점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서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응이라는 근대극복의 한 양태다. 그것에 붙여진 이름이 아마도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일 것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를 한반도에 건설하는 것이 한반도 주민들이 근대에 잘 적응하는(= 근대를 극복하는) 길이며, 이 새로운 형태의 복합국가를 백낙청은 서구와 질적으로 다른 한반도 모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 대한 백낙청의 오래된 양가감정이 이종과제론의 연원이며, 포스트모더니즘과의 대결 의식 속에서 그 인식이 명료화했고, 이종과제론은 그의 사상적 진화 과정 전체에서 매우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이종과제론의 한반도적 적용을 분단체제론이라 일컬은 그의 논의를 따라가 본 결과, 적응과 극복은 애초에 다르지 않은 두 항임이 새삼 확인됐다. 그럼에도 그가 적응이나 극복으로 개념을 일원화하지 않은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식민주의는 서구에 대한 양가감정을 품어 보지 못한 철없는 이들이 서둘러

59 백낙청(2009a), p. 43.

들어온 ‘박래품’이라는 그의 판단이 너무 확고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박래품 수입자들에게는 서구를 향한 모순적 태도가 부재하다는 판단과, 서구에 대한 ‘양가’감정이라는 일종의 원형적 정서가 만나, ‘이중’(double) 과제론이라는 백낙청 특유의 근대론이 제출되었던 셈이다.

5. 어떤 화해: “가들 세상”을 위해 물러나라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를 이중과제론적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백낙청의 글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가 암시하는바, 그가 이중과제론적 인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탈식민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론을 단지 기각하기보다는 그것과 적극 소통하는 편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⁶⁰ 교집합이 분명 존재했고, 무엇보다도 그 담론들이야말로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각별한 파급력을 발휘했었기 때문이다. 만일 그랬다면 이중과제론이 갖는 비평이론으로서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손님』에 관한 문학비평이 분단체제론과 관련된다는 것은 잘 알겠지만 어째서 그것이 이중과제론과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나⁶¹ 이중과제론이 문학비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뚜렷한 감이 안 온다는 발언들은⁶² 이중과제론의 비평적 한계를 분명히 가리킨다.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에 실린 아카데미 참석자들의 발언을 포함해, 『손님』론을 이중과제론과 결부지어 읽어 보라는 백낙청의 요구에 제대로 답한 경우는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워 보

60 “분단체제론이 트랜스내셔널리즘, 탈근대의 사유로부터 진정한 자양분의 흡수 없이 자기 동일성의 성취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윤성호(2009), p. 448.

61 8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장비, p. 287.

62 5회차 공부모임(2018), p. 188.

이다. 적어도 비평의 영역만 놓고 본다면, 탈식민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론은—그 이전과 이후의 문학 장의 지형을 고려할 때—서구를 유일한 모델로 삼아 부화뇌동하는 이들이 받아들인 박래품으로 낙인찍을 수 없는, 새로운 문학과 예술의 소중한 이론적·실천적 자원이었다.⁶³

흥미롭게도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의 비평적 한계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읽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주문한다. 또는 『손님』론을 이중과제론적으로 읽어 보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손님』론의 경우는 제가 글을 쓸 당시에 이중과제론을 적용하지는 의식이 또렷하지 않았는데, 그거 없어도 이 정도로 됐다고 볼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중과제론을 집어넣으면 더 재미있겠다고 볼지 여러분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⁶⁴

백낙청은 자신의 『손님』론이 “분단체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와 문학평론의 상보 가능성을 탐구한 평론”이며 “이중과제론과 연결하려는 우리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⁶⁵한 글이라 말했다. ‘이중과제론이 들어가면 더 재미있을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위의 요청은 『손님』론을 이중과제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한 한 참석자의 발언 바로 뒤에 나온 것인데, 그런 점에서 백낙청의 이 같은 주문은 이중과제론적 읽기의 어려움 자체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이 절에서는 이중과제론을 대신해 황석영의 『손님』론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줄 또 다른 관점으로 세대론을 도입해 본 후 논의 전체를 마무리하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 『손님』론에서 백낙청은 소설에 등장하는 유령이 충분히 유령답지 않다는 점을 미학상 아쉬움으로 지적한 바 있다. 결말의 억지스러운 화해 역시 유령 형상화의 문제점과 관련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유령의 재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손님』에서는 유

63 손유경(2020),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참고.

64 5회차 공부모임(2018), p. 188.

65 5회차 공부모임(2018), p. 173.

령이 산 자처럼 그려진 만큼 산 자 또한 유령처럼 그려져 있는데, 작중 ‘영매’ 역할을 하는 류요섭 목사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형 요한의 죽음 이후 요섭은 유령이 된 형을 목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한 몸이 된 것만 같”⁶⁶은 경험을 한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통 속에서 요한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⁶⁷오기도 한다. 유령과의 병의 또는 합체를 연상시키는 장면은 더 이어진다. 형 요한에게 죽임을 당한 순남이 삼촌이 유령으로 나타났을 때 요섭은 흡사 자신이 “그의 등에 업혀 있는 듯한 느낌”⁶⁸을 받는다. 유령 앞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다.

『손님』의 서사는 이처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배경으로 전개되다가 제7장 〈생명돌음 - 이승에는 누가 살까〉를 기점으로 새로운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데, 요한의 헛것과 요섭이 나누는 다음 대화는 이런 맥락에서 새삼 주목을 요한다.

형님 …… 또 왔군요. (중략) 오늘은 또 무슨 불일이오?

너 나를 찬샘골에다 묻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미련없이 가시는 거예요.

아암, 동무들 따라서 가야지. 다니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니엘은 형님을 미워해요.

그래두 할 수 없지. 여기 사람들 전부가 날 미워하지. 하지만 새루 태어난 이들에겐 새 세상이다.

새 세상까지 미운 게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깨끗이 씻구 가야죠.

그래서 동무들이 날 데려가자구 기다리지 않니?⁶⁹

66 황석영(2001), p. 38.

67 황석영(2001), p. 50.

68 황석영(2001), p. 66.

69 황석영(2001), p. 159.

요한의 유령과 요섭이 나누는 위의 대화에는 '이승에는 누가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암시돼 있다. 이승은 새로 태어난 이들(자식 세대)의 세상이니, 자신들은 저승으로 물러가겠다는 뜻이다. 이제 『손님』의 각종 인물들은 죄 많은 부모 세대(저승/유령)와 무구한 자식 세대(이승/생명)로 구별되기 시작한다. 요섭이 형수와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가는데, 형수는 떠나는 요섭에게 다니엘의 배다른 형제들을 데려와 보라며 이렇게 당부한다. **“이젠 가뎔 세상이니깐, 우리야 인차 가야디. 길카구 거[요한의 유해-인용자] 꼭 파묻어주라요.”**⁷⁰ 형수와 헤어진 후 교인이자 당원인 외삼촌 안성만과 어렵게 재회한 요섭은 삼촌 또한 헛것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왜 자신들 앞에 유령이 출몰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안성만은 이제 세상이 바뀌려 한다면서 이렇게 단언한다. **“그 일얼 꺾은 사람덜으 때가 무르익 었단 소리디. 이제 준비가 되었던 말이다.”**⁷¹

『손님』의 산 자(요섭)는 왜 이미 죽은 자처럼, 또는 유령처럼 그려졌는가? 제9장 <길 가르기-이별>의 이별 장면에서 등장하는 안성만의 대사, 즉 “갈 사람덜언 가구 이제 산 사람덜언 새루 살아야디.”⁷²라는 말에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즉 요섭이나 형수, 그리고 안성만은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곧 떠날 사람들’인 것이다. 만일 『손님』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찾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거나 의미 있다면, 그 화해는 기독교라는 손님과 공산주의라는 손님 사이에서가 아니라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손님』의 ‘숨은 손님’은 바로 미래 세대다.

70 황석영(2001), p. 163.

71 황석영(2001), p. 175.

72 황석영(2001), p. 251.

참고문헌

1. 자료

- 백낙청(2021),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창비.
- 백낙청(2009a),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창비.
- 백낙청(2009b),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와 녹색담론」, 이남주 엮음, 『이중과제론』, 창비.
- 백낙청(2006a), 「황석영의 장편소설 『손님』」,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 백낙청(2006b), 「민족문학, 세계문학, 한국문학」,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 백낙청(2006c), 「2000년대의 한국문학을 위한 단상」,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 백낙청(1994),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 『창작과비평』 22(3).
- 백낙청(1992),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4).
- 백낙청(1989),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비평』 17(1).
- 백낙청 외(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 백낙청 외(2009), 『이중과제론』(이남주 엮음), 창비.
- 백영서·손호철·유재건·김호기(1995), 「좌담: 근대성의 재조명과 분단체제 극복의 길」, 『창작과비평』 87.
- 손호철(1994a), 「분단체제론 재고」, 『창작과비평』 22(4).
- 손호철(1994b),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창작과비평』 22(2).
- 황석영(2001), 『손님』, 창작과비평사.
- 4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 5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 8회차 공부모임(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창비.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88674.html>

2. 논저

- 김동식(2011), 「리얼리즘의 승리와 텍스트의 무의식: 임화의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 김재용(1999), 「분단을 거부한 민족의식: 8.15 직후 염상섭의 활동과 『효풍』의 문학사적 의미」, 『국어국문학연구』 20, 원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 류동규(2015), 「분단체제의 기원과 기독교」, 『기독교사상』 678, 대한기독교서회.
- 손유경(2020),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 신동훈(2018), 「황석영 소설을 통해 본 이야기 전통의 현대적 재현 문제」, 『한국문학연구』 5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 유승환(2016), 「황석영 문학의 언어와 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성호(2009), 「누가 민족문학을 두려워하랴?: 트랜스내셔널리즘 시대의 민족문학」, 『동아시아문화연구』 45, 한양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현길언(2005), 「위장된 민족주의와 가짜 화해: 황석영의 『손님』의 문제」, 『본질과 현상』 2, 본질과현상사.
- 루카치, 게오르크(1987),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미학적 텍스트에 대한 입문」, 『루카치의 변증 유물론적 문학이론』(차봉희 편저), 한마당.

원고 접수일: 2023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0일

ABSTRACT

Guests of Modernity

SON, You Kyung*

This article examines Paik Nak-chung's theory of the division system in discursive relation to both national literature theory and double project theory, offering a critical reading of Hwang Seok-young's *The Guest*. In light of the challenges posed by the neo-Cold War era, this study contemplates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Guest* and the messages embedded within Paik's literary criticism. Chapter 2 examines the critical intersection of division theory and the theory of national literature, questioning the claim that national literature can serve as a surrogate for a literature that transcends division, while acknowledging its dual nature. Chapter 3 focuses on the analysis of Paik's critical discourse on Hwang Seok-young's *The Guest*, shedding light on why it can be seen as an inverted manifestation of Georg Lukács's realism. Chapter 4 assesses both the theoretical potential and critical limitations of Paik's theory of division system within the context of the double project agenda. Chapter 5 concludes the discussion by highlighting how Paik's call to 'read' *The Guest* through the lens of a double project highlights the challenges inherent in such an approach, and proposes the adoption of a generational perspective as a new methodology for interpreting *The Guest*. By positing that any potential reconciliation found in *The Guest* is not between Christianity and Communism, but rather betwee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ast and future generations (in the future), this paper illuminates the intricate and contemporaneous nature of Hwang Seok-young's *The Guest* and Paik Nak-chung's literary criticism with renewed immediacy and pertinence.

Keywords Paik Nak-chung, Theory of the Division System, Double Project Theory, Hwang Seok-young, *The Guest*, Georg Lukács's Realism